

빵빵 터지는 '감빵생활'...박해수만 못 터지네

드라마 인기에도 주연만 낮은 화제성 등장인물 많아 주목 받을 기회 줄어

연기자 박해수가 화제적의 주인공을 맡고서도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을 남긴다. 박해수는 tvN 수목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을 통해 데뷔 후 첫 주인공으로 나서 얼굴과 이름을 알리고 있다. 하지만 연출자 신원호 PD가 무명에 가까운 그를 과격적이고 과감하게 캐스팅하며 기대했던 인기와 화제성에는 미치지 못하는 분위기다. 방송 전만 해도 박해수의 등장에 방송가의 시선이 모아졌다. 드라마와 영화 출연작은 많지 않아도, 2000년대부터 연극무대에서 경연

을 쌓은 까닭에 그의 진가가 '슬기로운 감빵생활'을 통해 발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1년 제4회 대한민국 연극대상 신인상 수상과 2012년 제48회 동아연극상 유인촌신인연기상을 받은 경력은 그에 대한 기대를 더욱 키웠다. 2016년에는 영화 '마스터'에서 범거지 역으로 출연해 쫓지만 강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18일 종영까지 2회를 앞둔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 박해수는 "원톱 주인공"이라는 신원호 PD의 소개가 무색할 만큼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조연들의 활약에 그의 존재감이 다소 가려지고 있다. 더욱이 주인공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기에는 등장인물이 워낙 많고 이들의 사연까지 다루다보니 박해수가 주목을 받을 기회가 자연스럽게 줄게 됐다.



tvN '슬기로운 감빵생활'의 박해수.

신원호 PD는 앞서 드라마 '응답하라 1997'으로 서인국을 스타로 발돋움하게 했고, '응답

하라 1994' 정우, '응답하라 1988' 박보검·류준열을 잇달아 인기 정상에 올려놓으면서 '신원호 매직'이라는 말까지 만들어냈다. 자연스럽게 박해수도 그런 '수혜'를 기대했지만, 주인공에 대한 시청자의 관심은 이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박해수에 대한 주목도는 기대만큼 크지 않지만, '슬기로운 감빵생활'은 조연진의 활약에 힘입어 시청률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다. 11월 22일 4.6%(닐슨코리아)로 시작한 드라마는 이달 11일 14회에서 10.6%를 기록하며 인기 드라마로 인정받고 있다. 다양한 화면을 담아내기 어려운 '감옥'이라는 배경의 드라마는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보기 좋게 불식시켰다.

백승미 기자 bsm@donga.com

숫자뉴스

3억 6000 만원

배우 이나영이 받지 못한 드라마 출연료다. 이나영은 2010년 방송된 KBS 2TV '도망자 플랜B'에 출연했지만,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출연료 일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제작사인 '도망자 에스원 문전사'는 현재 문을 닫은 상황이다.

#해시태그 킷



'과자의 유혹'에 빠진 신세경

드라마 '흑기사' 촬영에 한창인 신세경이 천진난만한 아이와 같은 미소를 짓고 있다. 촬영장 대기실 한쪽에 종류별로 수북이 쌓인 과자를 보며 한없이 행복한 표정이다. 음료수, 초콜릿, 과자, 컵라면, 즉석밥, 우유, 껌 등 한 끼 식사부터 후식까지 웬만한 건 다 있다. 팬들은 쌓여 있는 간식을 다 먹어도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신세경의 몸매를 부러워한다.

이정연 기자

#스포츠동아 #신세경 #흑기사 #군것질 #뽕부터먹지?

이 노래

오마이걸 - 클로서

데뷔 3년 만에 빛 봤다 '오마이걸 입덕송'으로

결그룹 오마이걸이 데뷔 3년 만에 '빛'을 보고 있다. 9일 미니앨범 '비밀의 정원' 발매 직후 빅스 등의 음악차트에서 1위에 올랐고, 같은 시기 발표된 결그룹 브랜드평판 지수(한국기업평판연구소 집계)에서는 '넝사벽'(넝기 어려운 벽)으로 꼽히는 트와이스와 레드벨벳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떨 것 같은데 좀처럼 뜨지 못하는 결그룹'이었던 오마이걸은 그렇게 3년 만에 '유망주' 꼬리표를 떼고 '대세 결그룹'을 향해 한 발짝 전진한 모양새다.

팬소 오마이걸의 음악을 주의 깊게 들어왔던 이들이라면 3년 만에 빛을 본 이들에 대한 감회는 더욱 클 것이다. 대부분의 결그룹 음악이 무대 퍼포먼스용으로 만들어져 '보는 음악'에 치우쳐 있지만, 오마이걸은 퍼포먼스 없이도 음악만으로 충분히 흥행 받을 작품을 선보여 왔다. 2015년 4월 '큐피드'로 데뷔한 '라이어 라이어' '윈디 데이' '한 발짝 두 발짝' '리얼 월드' 등이 팬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얻은 노래들이다. 기자도 팬소 "음악만으로 따지면 오마이걸이 결그룹 중 최고 순위"라는 점을 주변에 밝히기도 했다.

오마이걸의 좋은 노래들 중에서도 '클로서'(Closer)는 명곡으로 꼽을 만하다. 2015년 10월 발표된 두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인 '클로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소녀가 누군가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통탄적인 코드진행과 악기구성 그리고 애절한 멜로디로 표현한 곡이다. 소녀시대 '라이어 라이어' 등을 만든 선 알렉산더와 미국 유명 작곡가 로라 브라이언이 함께 작곡했다. 중저음에 매력적인 멤버 유아를 중심으로 몽환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오마이걸의 다채로운 보컬은 듣는 이들의 감성을 충분히 자극시키며 '기회' '오마이걸 입덕송'이라 할 만하다. 입덕송은 '덕후(마니아)로 입문하게 하는 노래'라는 의미. 결국 오마이걸의 약진은 '음악의 힘'에서 비롯된 것이다.

김원경 기자 gymyung@donga.com

할리우드 대작들이 한국만 찾는 이유

뉴스인사이드

아시아 프로모션 '한국만 방문' 잇따라 높은 흥행 가능성... '김영란법' 영향도



영화 '메이즈 러너: 데스 큐어'

개봉을 앞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와 그 주역들이 아시아에서는 한국에서만 프로모션을 벌이는 횟수가 점차 늘고 있다. 과거 일본이나 중국을 영화 홍보의 거점으로 삼았던 할리우드가 이제는 가장 매력적인 아시아시장으로 한국을 지목하고 있다.

2월14일 개봉하는 '블랙팬서'의 주연배우 채드와 보스만과 마이클B. 조던, 루피타 뇽과 라이언 쿠글러 감독이 2월 초 내한 프로모션을 벌인다. 마블스튜디오가 10주년을 맞아 야심 차게 내놓는 시리즈를 아시아에 소개하는 무대가 한국이 된 셈이다.

17일 개봉한 '메이즈 러너: 데스 큐어'도 주연배우 3명이 아시아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만 찾아 프로모션을 벌였다. 이들은 기자회견, 레드카펫 행사, 라디오 출연, 온라인 생방송 등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이벤트를 소화했다. 지난해 개봉한 '킹스맨: 골든서클'도 마찬가지다.

전 세계 관객을 상대하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와 그 주연진이 한국을 아시아 프로모션의 무대로 택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만큼 흥행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고, 영화를 선별해 즐기는 관람 문화 역시 탁월하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메이즈러너' 시리즈는 북미에 이어 한국과 프랑스에서 가장 높은 흥행 수익을 거뒀고, '킹스맨' 1편도 비슷하다. '어벤저스',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의 마블스튜디오 작품은 한국에선 언제나 '흥행 불패'다.

이번 '블랙팬서'와 앞서 '킹스맨: 골든서클' 내한 프로모션을 담당한 영화사 호호호비치 이

재현 대표는 "시장 규모로 한국은 중국 다음으로 크고 영화를 즐기는 관람문화와 관객의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할리우드 제작진이 매력을 느낀다"고 밝혔다.

'킹스맨'의 폴린퍼스는 내한 당시 "영화를 해외에서 알리게 된다면 한국 방문은 우선순위"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서만 아시아 프로모션이 진행되다보니 그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다. 최근 '메이즈 러너: 데스 큐어' 때는 아시아 8개국에서 40여명의 취재진이 참여했다. 이번 '블랙팬서'는 일본과 동남아시아, 뉴질랜드까지 아우르는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마침 올해 10주년을 맞은 마블스튜디오는 이번 내한 프로모션을 활용해 그 의미의 방향을 아시아에 알릴 계획이다.

한편에서는 이 같은 분위기가 형성된 데는 2016년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적게나마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꺼낸다. 영화 마케팅사의 한 관계자는 "1~2년에 한 두 차례씩 이뤄지던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해외 동행 취재가 김영란법 적용으로 사라지면서 홍보의 무대가 한국으로 집중되는 점도 간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goff1024@donga.com



연예현장.jpg

'싱글와이프' 시즌2 '가즈아~'

SBS '싱글와이프' 시즌2가 새로운 이야기로 시청자를 찾는다. 시즌1이 남만일탈을 원하는 아내들의 여 행기를 보여줬다면, 17일 밤 11시10분 첫 방송하는 시즌2는 아내들이 아닌 사람 한 명 없는 곳에서 '친구 만들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준다. 서경석과 아내 유다솔, 임백천과 아내 김연주, 정만식과 아내 린다 전, 정성호와 아내 김광음, 김정화와 남편 유은성, 윤상과 아내 심혜진이 출연한다. 16일 서울 목동 SBS 시청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박영수(원작)와 이유리가 다양한 포즈를 취하며 프로그램의 성공을 기원했다.

유라, 걸그룹 출신 악녀 '바통터치'

KBS드라마 '라디오 로맨스' 악역 출연



걸스데이 유라

본격적으로 연기에 도전하는 걸그룹 걸스데이의 유라도 '악녀'를 선택했다. 드라마 속 악역은 입체적인 성격으로 그려져 등장인물들 사이에서 더 눈에 띄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유라는 29일 첫 방송하는 KBS 2TV 월화드라마 '라디오 로맨스'에서 과거 화려했던 전성기를 되찾기 위해 '깜찍한' 악행을 저지르는 톱스타를 연기한다. 주변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자신의 야망을 채우려는 인물이다.

유라에 앞서 씨스타 출신의 다솜이 악역 효과를 톡톡히 누린 바 있다. 지난해 10월 종영한 SBS '언니는 살아있다'에서 극악무도한 행동을 일삼는 캐릭터로 시청자의 미움을 사기도 했지만 걸그룹 활동 때와 정반대의 이미지가 연기자로서 자신을 알리는 데 주효했다. 시청자들의 눈도장을 받으며 키운 존재감은 다른 연기자들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강했다. 이 활약을 높이 평가 받아 2017 SBS 연극대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유라는 악역이 지닌 매력을 '반전 카드'로 활용할 예정이다. 악역이 지닌 매력의 폭을 넓혀겠다는 그는 "악녀지만 사랑스럽고 어설플 면이 있어 미워할 수 없다"고 캐릭터를 소개하기

도 했다. 극중 유라는 옛 영광을 재현하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 웃되고 센 성격으로 표현되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러워 동정심을 유발하게 한다. 또 과거 활약했던 자신의 영상을 찾아보고, 떠난 팬을 활동하는 등 독특한 취미를 지니고 있어 귀여우면서도 사랑스럽게 극중 인물을 표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캐릭터가 실제 자신과 같은 '연예인'이라는 점에서 배역에 대한 높은 공감과 이해로 연기에 도움을 얻고 있다.

제작사 관계자는 "걸그룹으로 활동하면서 보여준 이미지가 극중 캐릭터와 잘 부합한다. 드라마가 추구하는 아날로그 감성에 유라의 매력이 더해지면 색다른 분위기가 연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승미 기자

자체제작 리얼리티에 빠진 가수들

보아·블랙핑크 등 팬들과 소통 창구로

가수들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잇따르고 있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기존 방송사에서 선보이던 거창한 예능프로그램이 아니라 해당 가수들만 출연하는 작은 규모의 자체 제작 콘텐츠다.

이는 새 앨범 홍보나 근황을 알리기 위한 최고의 수단으로 통한다. 여기에 신비주의 이미지를 벗고 팬들에게 한층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그룹 방탄소년단부터 보아,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수영, 블랙핑크 등 정상에 오른 스타부터 신인 아이돌 가수들까지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그동안 SNS로 대중과 소통하던 방식이 리얼리티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최근 보아와 소녀시대 수영은 팬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얼리티 출연을 선택했다. 보아는 이달 말 새 앨범을 발표하기에 앞서 '키워드#보아'에 출연한다. 보아가 리얼리티에 출연하는 것은 데뷔 후 처음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케이블채널 XtvN에서 각각 22일과 28일부터 방송하는 '키워드#보아'에서 보이는 새 앨범 준비과정부터 음악

과 인생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슈퍼주니어는 지난해 방송한 리얼리티 '슈퍼리턴즈'가 인기를 끌자, 이번엔 아예 '슈퍼TV'를 제작해 XtvN에서 26일부터 선보인다. 소녀시대 멤버에서 홀로서기에 나선 수영 역시 '90년생 최수영'이라는 제목의 리얼리티를 통해 팬들과 만난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소녀시대 멤버가 아닌 지금껏 평범한 20대 여성의 일상이 공개된다. 소셜미디어 '딩고'와 유튜브 채널 등에서 꾸밈없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수영은 "동갑인 또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고 싶기도 하고 '나도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출연 이유를 밝혔다.

이들에 앞서서는 방탄소년단이 일찌감치 자체 버라이어티를 방송하고 있다. 이들은 '방탄TV'를 통해 소소한 일상을 공개해 팬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낸다.

블랙핑크 역시 6일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유튜브, JTBC2 채널 등을 통해 '블핑하우스'를 공개하고 있다. '블랙핑크 하우스'라고 이름 붙여진 장소에서 멤버들이 100일 동안 휴가를 즐긴다는 컨셉이다. 지난해 데뷔해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할 기회가 적었던 이들이기에 블랙핑크 멤버들의 색다른 모습에 팬들의 관심이 높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